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6.7~2017.6.1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깨달음의재발견	우오가와유지	(주)조계종출판사
2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3	사는게내맘같지않을때힘이되는말	범수스님	담앤북스
4	물흐르고꽃은피네(좋은때를놓치지않고사는법)	금강	불광출판사
5	홀가분한동행	종연스님	뜨란
6	야단법석(2)	법륜	정토
7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8	아무도너를묶지않았다	월호	쌤앤파커스
9	위대한스승청화큰스님	유철주	상상출판
10	우리가 사랑할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일초스님외	민족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삼귀의와 사홍서원… 모든 교리 관통

불교란 무엇인가

이중표 지음 | 불광 펴냄 | 1만 6천원



불교 초심자들에게 지평이 되어준 〈불교란 무엇인가〉가 재복간됐다. 이 책은 원래 평생을 불교연구에 매진한 이중표 전남대 교수가 1995년 BBS불교방송서 교리강좌를 진행하면서 집필한 원고를 바탕으로 2012년 출간됐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불교를 현대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이 책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모두 아우르는 세밀한 구성과 신앙적 측면까지 고려해 저술된 불교개론서로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지만 전 출판사의 경영악화로 안타깝게도 절판 되고 말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교란 무엇인가〉를 찾는 독자들의 요청과 불교 입문서의 필요성을 느낀 불광출판사는 이중표 교수와 협의해 이 책을 다시 펴냈다.

제목서도 알 수 있듯이 〈불교란 무엇인가〉는 불교 본질에 대한 현시대적 물음의 답변이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교에 관한 궁금증에 답함과 동시에 일반 불자들도 교리를 심화시킬 수 있는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대중 눈높이에 맞춰 쉬운 우리말과 예시로 불교 교리를 담백하게 설명한 부분이 특히 돋보인다. 불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를 만들고자 한 이중표 교수의 노고도 동시에 엿볼 수 있다.

이중표 교수는 '삼귀의는 불교의 출발점이고 사홍서원은 불교의 결론'이라고 말한다. 모든 법회가 삼귀의로 시작해서 사홍서원으로 끝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한다. 삼귀의와 사홍서원을 사이에 두고 불교의 모든 교리가 관통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은 〈불교란 무엇인가〉의 기준점이 된다. 불 · 법 · 승 삼보에 의지하는 삶은 인간 본연의 참모습이고, 사홍서원은 자리이타적 삶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한다.

"불교에는 삼귀의와 사홍서원이 있습니다. 삼귀의는 부처님(佛) · 부처님의 가르침(法) · 승단(僧), 이 세 가지 보물(三寶)에 의지해 살아가겠다는 맹세입니다. 부처님은 번뇌를 극복하고 해탈을 성취한 성자입니다.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중생에게 차별 없이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한 많은 이들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의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삼보에 의지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중생은 비로소 속세를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자비심이 일고 '너와 나'의 분별을 여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큰 서원(四弘誓願)을 세웁니다. 가없는 중생을 구제하고, 다함이 없는 번뇌를 끊고, 무량한 법문을 배우고, 무상의 불도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이 관점을 기준삼아 불교에 접근해야만 바르게 알 수 있다고 저자는 조언한다.

욕탐(欲貪)과 원(願)이 있다. 욕탐은 세간의 마음이고, 원은 출세간의 마음이다. 세간은 중생이 몸담고 있는 속세이고, 출세간은 열반의 세계이다. 이 욕탐과 원은 인간의 의욕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이중표 교수는 말한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욕탐은 어리석은 마음이 거짓된 허구를 만들어 그 허상을 맹목적으로 쫓는 욕망을 말한다. 잡을 수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다. 이러한 욕탐에는 만족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번뇌를 일으키고 고통을 준다. 원은 이 욕탐서 벗어나려는 마음상태를 의미한다. 부처와 같은 법신(法身)을 이루기 위한 자들이 원을 세운다. 이 원을 세우는 힘이 원력(願力)이고, 원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아(無我)를 깨쳐야 한다고 이중표 교수는 말한다. '무아'는 '연기(緣起)하는 나'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것을 깨달아 체득한다면 그것이 바로 법신이라고 책은 알려준다.

'무아'는 '연기(緣起)하는 나'…무아 깨쳐야 법신 이뤄

시대상으로 보는 고대 인도와 오늘날 우리와도 비교

〈불교란 무엇인가〉는 단순히 교리만 담은 책이 아니다. 불법승 삼보로 시작해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중도를 포함한 불교의 주요 교리뿐만 아니라, 불교가 탄생한 당시 인도의 사회적 배경, 사상적으로 경쟁한 바라문교와 자이나교 등과의 관계를 자세히 서술해 불교를 이해하는 데 넓은 안목을 제시한다.

저자는 비록 2,500년 전의 일이지만 정치 · 경제 · 사회가 혼란하고 삿된 종교가 판치던 당시 상황이 지금의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교세를 확장하는 불교에 위기감을 느낀 다른 종교들은 끊임없이 사상적으로 불교에 도전해왔다. 이러한 논쟁의 과정 속에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은 빛을 발했고, 많은 바라문교도들을 불교도로 만들어 불교의 교세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고 책은 전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올바른 신행 길잡이

불교입문

조계종 포교원 편찬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 2천원



2,6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넓고도 깊게 발전한 불교는 그 역사만큼이나 알아야 할 것이 많은 종교다. 그래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불교입문〉은 불교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다.

전 세계 수많은 종교 중 불교만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인지, 부처님 · 보살님 · 신중님 등 불교서 믿고 의지하는 분들은 어떤 존재인지, 부처님은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불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 등 불교와 신행 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비롯하여 사찰의 전각이나 불보살상과 같은 불교문화에 대한 소개, 한국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의 역사 등 이 책서 다루는 내용은 그 범위가 무척이나 넓다. 하지만 여러 주제를 다루었음에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을 골라 소개했고,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는 간결하면서도 쉽게 서술했다. 그래서 혼자 읽어도 불교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처음 만나는 사람은 물론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도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줄 것이다.

〈불교입문〉은 1996년 9월에 초판이 발행된 이후 여러 차례의 수정 증보판을 거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독자들에게 불교를 소개한 불교계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이기도 하다.

2012년 개정판 〈불교입문〉이 발행된 이후 5년만에 새롭게 탄생한 이 책은 2012년 개정판 〈불교입문〉과 동일한 판형, 동일한 글자 크기로 가독성은 유지하면서, 각각의 주제는 보다 자세하게 다루었다. 예를 들어 부처님 생애에 대한 부분을 보면, 종전의 〈불교입문〉서는 1쪽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2017년 개정판 〈불교입문〉서는 여덟 개의 절로 나누고, 열여덟 쪽에 걸쳐 좀 더 세세히 서술했다. 이런 식으로 이전의 〈불교입문〉이 갖던 단점과 아쉬운 점들을 수정, 보완했다. 또한 본문에 '요점 정리'와 같은 읽을거리를 함께 실어 본문 이해를 도왔다. 사찰을 칭하는 여러 단어는 어떤 의미인지, 삼학과 삼독, 팔정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 본문에 서술된 용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실어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없지만 더 알아두면 좋은 개념도 소개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지 자료를 컬러로 수록한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2012년 개정판 〈불교입문〉이 도판을 흑백으로 담아 독자에게 아쉬움을 남겼다면, 2017년 개정판 〈불교입문〉서는 불보살상이나 전각, 불화 등 다양한 도판들을 컬러로 수록하여 좀 더 생생한 느낌을 담았다.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책 내용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두루 수렴해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은 신도교재편찬위원회를 구성했다. 스님과 재가자가 함께 어우러진 신도교재편찬위원회는 십여 차례에 걸친 편찬회의를 통해 이 책의 집필 방향과 목차를 구성하고, 또 여러 차례 검토했다. 그리고 이러한 집필 방향과 목차에 따라 불교에 정통한 전문 집필위원이 글을 써서 독자들을 올바른 신행의 길로 안내하고자 하였다.

조계종포교원 신도교재 편찬 위원회 구성

2012년 재개정판 이후 5년만에 다시 개정

그렇게 만들어진 이 책이 불교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한 다른 수많은 입문서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불교 교리 소개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적용,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불교는 개인의 수행, 그리고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실천이 중요하다. 본문이 교리에 대한 설명만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각 장이 끝날 때마다 토론하고 사유해 보도록 하는 실천과제를 제시한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인도 '파담파니 관세음학교' 불사 기록 담아… 2014년 준공

부처님의 땅에 부처의 씨앗을

관허 보명 지음 | 맑은소리 맑은나라 펴냄 | 1만 3천원



경주 보광사 주지 보명스님에게 인도는 가피의 땅이다. 지혜와 행복이 충만한 삶을 선물한 부처님 가르침이 잉태한 자비의 도량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도 성지 어느곳을 가나 스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 온 것은 거리의 아이들이다. 차마가 오고 가며 먼지를 풀풀 날리는 도로가에서 노트 한 권을 펼쳐 놓고 공부하는 아이들, 맨발에 단정치 못한 차림으로 순례객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아이들, 스님은 그들의 커다란 눈동자가 내내 잊히지 않았다.

그렇게 수차례 인도성지 순례를 다녀올 동안 감사와 환희심으로 가득찬 스님의 마음에 꿈많은 인도 청년 신뚜가 씨앗 하나를 심었다. 그것은 단 한칸의 교실이라도 아이들이 공부를 공부답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스님의 불사 계획이 알려지자 후원 인연이 곳곳서 답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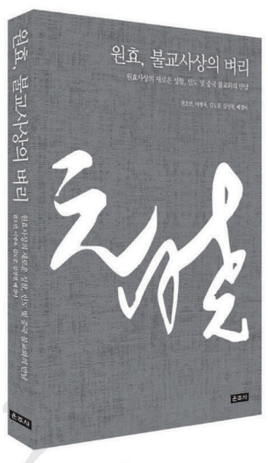
이번 책 〈부처님의 땅에 부처의 씨앗을〉에는 보명 스님의 회고록이자 인도 〈파담파니 관세음학교〉 불사의 기록을 담았다. 부처님 성도지인 보드가야대탑에서 약 10㎞가량 떨어진 불가촉천민들의 생활터전에 학교 용지를 매입해 우물을 파고 건물을 세웠으며, 2014년 11월 '파담파니 관세음학교'를 준공했다. 천진불 교육도량으로서 첫 걸음을 뗀 것이다. 이윽고 인도 정부가 인정하는 '파담파니 교육 및 사회재단'으로 성장했다.

책은 불교 성지를 무대로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가며 〈파담파니 관세음학교〉의 불사 과정과 그 속에서 만난 인연담을 감동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마지막 장에는 '나'와 '삶'과 '마음'을 노래한 스물 두 편의 시를 수록해 긴 호흡으로 술회한 인도 이야기를 휴식으로 갈무리 한다.

김주일 기자

원효 탄생 1400주년,

원효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원효, 불교사상의 벼리

-원효사상의 새로운 성찰, 인도 및 중국 불교와의 만남

한국 불교의 바깥에서 바라본 원효!

주로 한국불교의 맥락에서 연구된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도 및 중국불교의 주요한 사상들과 원효사상을 비교 연구하여, 원효 이해의 지평과 원효사상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권오민, 이병욱, 김도공, 김성철, 배경아

신국판/무선/336쪽/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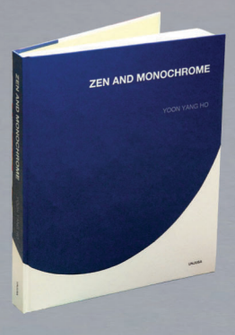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선禪과 현대미술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예술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작가 〈윤양호의 33회 개인전〉

작품집

ZEN AND MONOCHROME

(선과 단색화) 출간 기념 전시



서양에서의 현대미술은 선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선禪적 지향이 뚜렷하다. 한국의 윤양호는 그 접점에 서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다. 현대미술의 흐름을 아우르면서 그만의 독창성이 어우러진 강렬하면서도 절제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B3판/양장/244쪽/50,000원/운주사

윤양호: 독일 국립 쿤스트아카데미 뒤셀도르프 미술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선조형예술학과 교수이다.

기간 : 2017.05.10-15

장소 : 인사아트센터 | 본전시장(1F)

Tel (02) 736-1020

